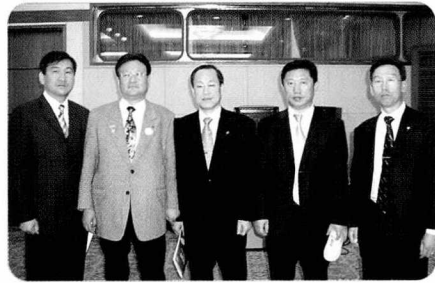


2007년 사무국장, 복십자의원장 회의 개최



대한결핵협회는 4월 21일 부산지부에서 2007년 사무국장과 복십자의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전직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회원모집사업을 통해 결핵퇴치사업 전개에 최선을 다하며, 현재 협회의 어려운 현실에 문제의식과 긴장감을 갖고 사업의 다각화를 통하여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지원 시행해 나가는데 내부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범수 대한결핵협회 전라북도 사무국장 국무총리 표창 수상



4월 6일 열린 제35회 보건의날 기념행사에서 대한결핵협회 이범수 전라북도 사무국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범수 국장은 우리나라 결핵퇴치에 대한 남다른 신념과 사명감으로 196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결핵퇴치를 위한 국가결핵관리사업에 기여하여 왔다.

부산지역 고등학생 14명 결핵집단 발병

지난해 부산에서 고등학생 39명이 결핵환자가 발견되는데 이어서 올해 신학기 검진에서 또 결핵환자가 발견되어 시 보건당국이 비상이다.

대한결핵협회 부산지부는 부산 시내 고교생들에 대한 결핵진단 결과 5개 고교에서 14명의 결핵환자가 발견되었고 21명은 요관찰자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다수의 환자가 동시에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원 규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